

## 중학생의 자아개념과 외모관리행동 연구

이진영\* · 위은하\*\*1)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가정교육전공\* · 전남대학교 가정교육과, 전남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

### A study on the self-concept and the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in middle school students'

Lee, Jin-Young\* · Wee, Eun Hah\*\*1)

*Major of Home Economics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Human Ecology Research Institut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the differences in general self-concept, academic self-concept, significant others self-concept and emotional-physical self-concept in relation to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It goes on to show that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such as styles in clothing, makeup, skin care, hair care, cosmetic surgery and body shaping, weight control management are strongly influenced by self-concept.

Therefore, this study was carried out with the aim of providing basic understanding and information on the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of middle school students. It was also done in an effort to find ways of improving the self-concept of students through education as a part of the domestic science curriculum.

The results obtained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On average, the middle school students who took part in this study showed low self-concept and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which indicates a negative image of themselves. This suggests that efforts need to be made so that students can see themselves in a positive way and improve their self-concept through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Middle school students with a positive self-concept try to present themselves by keeping their skin clean and their hair attractive. They express their self-esteem and personality through fashion and by keeping and maintaining their clothing, shoes and bags. They also tend to show a positive attitude towards their studies and are more likely to understand and get along with others.

---

1) 교신저자: Wee Eunhah, 77, Yongbong-ro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city 500-757, Republic Korea  
Tel: 062-530-2523, Fax: 062-530-2529, E-mail: weh@jnu.ac.kr

The students who showed positive attitudes towards their bodies and emotions have a higher interest in clothing and try to express the image that they want for themselves. They are also less likely to change their bodies unnaturally through cosmetic surgery and body shaping. Appropriate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can help middle school students see themselves in a more positive way.

**Key words:** 자아개념(self-concepts), 중학생(middle school student), 외모관리행동(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스타일추구(styles in clothes), 화장(make-up)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우리 사회에서 외모는 사람을 판단하거나 분류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즉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의 실제 능력과는 무관하게 사회적 성공이나 유능함처럼 긍정적인 단서와 결합되는 경향이 있고, 이성이나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도 차별적 기준을 적용받는다.

이러한 외모를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은 인간의 사회화 과정을 통해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흡수되므로 10대 청소년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 특히 청소년들은 발달적 특성상 성인과 아동의 그 중간쯤 위치해 그들만의 독특한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며, 그로 인해 많은 청소년들은 심리적으로 불안함을 겪기도 한다. 청소년들의 인지적, 신체적 성장은 그들의 활동 영역을 확장시켜 전보다 더 많은 환경과 상호작용하도록 만들며, 이 때 불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스스로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은 자신과 같은 입장에 있는 또래집단에 대한 소속감과 동조성을 통해 또는 자신이 우상시하는 연예인에 대한 모델링(modeling)이나 모방을 통해 심리적인 만족감을 얻으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아직 자아개념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외부의 자극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Lee, 2009), 시기적 특성상 아직 뚜렷한 가치판단 기준을 정립하지 못했거나 정립하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올바른 신념체거나 자아개념의 형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전국 청소년(15~18세)들을 대상으로 Statistics korea(2006)

에서 ‘청소년이 고민하는 문제’가 ‘공부(61.1%)’, ‘외모(11.3%)’, ‘직업(7.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관심 영역 중 외모가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다시 외모관리행동들로 이어진다. 최근 청소년들의 외모관리행동은 다양화되고 있으며 그 방법 또한 전문적인 영역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 회장은 “10여 년 전만 해도 대학입시를 마친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들이 주로 병원을 찾았는데, 최근에는 중학생과 남학생들도 많이 찾고 시술 영역도 성인과 크게 다르지 않다(Women’s news, 2012. 01. 13)”고 했으며, 매년 20%씩 성장하는 10대 화장품의 연간 매출이 2천억 원 안팎을 유지해 유통기들이 ‘틴에이저’ 화장품 시장에 이목을 집중(The Korea economic daily, 2010. 9. 15)하고 있다는 기사에서도 그러한 경향을 알 수 있다. Korea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2010)의 보고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몸무게를 줄이려고 노력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50.8%로 식량을 줄이거나 규칙적인 운동 등을 통해 몸무게를 줄이려는 노력을 한다고 한다. 이와 같이 청소년들의 외모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최근 스마트폰 등의 대중매체들로 인해 더욱 가속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대중매체 속에 등장하는 연예인들은 그들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10대 청소년뿐만 아니라 대학생,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항상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고(Kim, 2010), 특히 기분의 변화가 심하며, 사회적인 민감도가 높고, 주체성의 확립을 위해 투쟁하는 외로움을 겪는 시기(Hwang, 2005)인 청소년기는 연예인의 외모를 쉽게 모방하게 된다. 청소년들은 사회적으로 용인된 미의 기준을 자신의 외모와 비교·평가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신체적 자아상이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면, 우울감이나 불안함 등을 느끼게 되며, 이러한 감정은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발달 및 자아개념 형성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인성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자아개념은 모든 활동의 중요한 동기가 되며 청소년기 긍정적인 자아개념의 형성은 전 인생을 통해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임이 틀림없다. Jang(2003)은 높은 자아 존중감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은 자신을 과장 또는 부정하려 하지 않으며, 독립적, 자주적으로 생각하고, 솔선수범하며 타인에게 관심을 갖고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친절하며 호의적이라고 하였다(Han & Park, 2009). 즉 자신의 신체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인 청소년일수록 자신의 삶을 좀 더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이러한 맥락에서 봤을 때 청소년이 자신의 내면화된 미적 기준에 맞게 외모를 가꾸는 것은 높은 자아개념과 관계가 깊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의 관계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외모관리에 대한 연구들이 주로 청소년의 자아와 의복과의 관계가 주를 이루어왔고(Chung & Lee, 2007; Lee, 2009), 이와 관련된 신체 이미지나 자아상, 신체 의식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Ahn, 2011; Jeon, 2010; Shin, 2008). 또한 그 연구의 대상에 있어서도 외모관리행동에 제약이 비교적 적은 성인 여성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Choi, 2011; Lee, 2007; Lee, 2012), 본 연구에서는 외모관리행동의 저연령화 및 남성들의 외모관리행동의 증가라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남·여 중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아개념에 따른 외모관리행동의 차이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동안 선행된 연구들을 토대로 외모관리행동을 의복스타일추구, 화장 및 피부관리, 헤어관리, 성형 및 체형보정, 체중관리행동으로 세분화하고, 중학생의 자아개념을 일반자아, 학문자아, 중요타인자아, 정의자아개념으로 분류해 자아개념에 따른 외모관리행동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가정이나 학교 등의 생활 지도 현장에서 중학생의 외모관리행동은 세대 간의 의견차가 보이는 영역이므로, 이 연구를 통해 중학생의 외모관리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가정과 의생활 영역 교욱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 2. 연구문제

- 1) 중학생의 자아개념과 외모관리행동의 일반적 특성은 어떠한가?
- 2) 중학생의 성별과 학년에 따른 자아개념과 외모관리 행동의 차이가 있는가?
- 3) 중학생의 자아개념에 따른 외모관리행동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II. 이론적 배경

### 1. 청소년기의 발달특징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옮겨가는 과도기로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발달을 급격하게 경험하게 되는 시기이며 정서적, 생리적 변화를 겪는 시기이다. 청소년이라는 시기가 어른도 아니고 아이도 아닌 모호한 경계에서 자신에 대한 인식과 현실에 대한 적응 사이에 갈등이나 혼돈으로 긴장과 혼란을 경험하므로 그들이 느끼는 감정을 몹시 빠르게 부는 바람과 소용돌이치는 물결과 같다고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청소년기의 이러한 정서적인 측면에서의 동요는 신체적 발달 및 제 2차 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대부분 성별 및 개인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11세 전·후의 청소년들의 신체는 성호르몬의 분비로 인해 눈에 띄는 성장과 성숙을 보인다(Tanner, 1978). 이제껏 소년, 소녀의 옛된 모습은 성인의 모습과 비슷하게 변하고, 이로 인해 아동기동안 그려왔던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정립해야 하는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청소년들은 스스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의 해답을 찾고자 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Erikson(1968)은 청소년기 중요한 발달과업 중 하나인 ‘자아정체성의 확립’이라고 보았고, 이 시기 발달과업을 제대로 해내야 이후 성인기 발달과업도 잘 해낼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청소년기에는 이러한 신체, 생리적 발달과 더불어 지적, 인

지적 발달의 변화 또한 양적, 질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즉, 추상적 사고와 논리적 추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상위인지(metacognition) 능력을 갖기 시작하여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Kuhn & Adams, 1979).

이상의 논리적, 체계적 사고 양상과 더불어 청소년기에는 자신의 관심사와 타인의 관심사를 구별하지 못하는 ‘자아 중심적 사고’의 특징이 나타난다. 그 중 ‘상상의 청중’이라는 왜곡된 인지현상은 청소년 자신이 무대 위의 주인공인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보일 것이라고 믿는 사고를 뜻하며(Elkind, 1967), 이 때문에 자신의 옷차림이나 행동에 신경을 쓰게 되는 자기도취적인 특성을 보이기도 한다. 청소년기 외모에 대한 높은 관심은 이와 같이 인간의 한 부분으로 동일시 될 수 있는 의복을 통해 청소년들은 자신의 자아를 표현으로 이어진다.

특히 극적인 변화를 겪는 청소년기는 이제까지의 정체감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풀어나가는 과정 중에 있는 시기이므로 의복이나 외모관리행동 등을 통해 자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려는 노력은 그들이 성장해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 2. 자아개념

자아개념(self-concept)이라는 용어는 정신분석학, 사회심리학, 발달심리학 등 많은 학문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개념이며, 같은 의미로 자아상(self-image), 자기의식(self-consciousness), 자아정체감(self-identity)이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자아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철학자인 James, W.(1890)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심리학의 원리(The principles of psychology)에서 자아를 자신의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모든 것의 총체로 주관적 자아(I)와 객관적 자아(Me)로 분류하고, 객관적 자아(Me)는 다시 ‘우리 각각의 가장 내부에 있는 물질적 자아(material self)’, ‘타인으로부터의 인정이나 존경을 추구하는 사회적 자아(social Me)’, ‘정신적인 능력이나 소질인 정서적 자아(spiritual Me)’로 나눴다.

이후 정신분석학적 측면에서 자아의 개념을 제시한 학자는 Freud와 그의 이론을 사회적 측면에서 발달시킨 Erikson이

있다. Freud는 의식을 구조적인 입장에서 원초아(id), 자아(ego), 초자아(superego)로 구별하여 각각을 쾌락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원초아, 양심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초자아, 현실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자아로 분류하였다. 더불어 그는 원초아와 초자아 간의 불일치는 많은 갈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현실의 원리에 따라 사고나 행동 등을 규제하는 균형 잡힌 자아(ego)의 역할은 삶을 영위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고전적 자아개념의 이론을 사회적 자아개념으로 확장시킨 학자는 Cooley와 Mead가 있다. Cooley(1902)는 인간은 혈연 등의 귀속적 지위로 생겨나는 1차 집단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계속적으로 ‘사회적 일체감(social unity)’과 ‘사회적 천성(social nature)’을 발달시켜 나가는 존재라고 하였으며, 이 중 사회적 천성은 ‘면경자아(혹은 거울자아, the looking glass self)’를 반영하는데, 이는 우리가 거울을 통해 자신의 외모를 보듯, 자아 또한 자신 주위의 다른 사람들이 보여주는 행동이나 반응을 통해 파악 된다고 보았다(Kang, 1995, 재인용). 즉 자아는 가정과 같은 집단에 의해 사회화됨과 더불어 타인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자신의 상상 및 타인들의 반응을 정리하는 과정 중에 형성이 된다는 것이다.

Mead(1934)는 Cooley의 이론을 좀 더 발전시킨 형태로 제시하여 자아발달이 오직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되며, ‘I’와 ‘Me’라고 하는 두 측면 사이의 내면적인 사회과정으로 보았다. 즉 자아는 충동·즉각·비조직적인 생활경험으로 표현되는 ‘I’와 타인에 의해 만들어져 사회적 규범이나 가치 등을 내부에 의식하는 ‘Me’의 끊임없는 내면적 상호작용을 통해 자기 나름대로의 세계를 이루어 가는 것이다(Kang, 1995). 이렇듯 Cooley와 Mead는 그 동안 자아를 자신 내적인 측면에서 제시한 이전의 견해와는 달리 사회적 과정에 의해 발달된다는 진보적인 이론을 제시하였다. 이후 학자들은 자아를 자신이 인식하는 자아와 사회화된 자아 이 두 가지 측면을 인식하여 연구를 해나갔다.

자아를 성격의 중심 특징으로 본 Allport(1961)는 ‘고유자아(proprium)’라는 용어를 만들어, 신체적인 자아, 자기정체감, 자존심이나 자부심, 자아확장감, 자아 추구가 개별적 혹은 동시에 작용하여 존재한다고 보았으며(Choi, Park et al., 1998), Strang(1957)은 자아개념을 전체적 자아개념, 일시적

자아개념, 사회적 자아개념, 이상적 자아개념 등으로 분류해 이상적 자아개념이 너무 높으면 심한 좌절이나 모멸감에 빠지기 쉽고, 반대로 너무 낮으면 성취욕이 없다고 하였다(Jung, 2005). Allport나 Strang은 그동안 단일화시켜 제시하였던 자아를 여러 가지 측면의 자아로 정의함과 더불어 자신이 추구하는 자아 즉, 이상적 자아개념을 제시해 다양한 측면에서 자아를 볼 수 있는 관점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정의들과 같이 자아는 분류하는 기준이 무엇이나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다. Lee와 Kim(1995)의 연구에서는 자아를 현상적인지의 여부에 기준을 두고 ‘사실 대(對) 허구로서의 자아’, 상호작용적 관점의 기준에서 ‘아는 자와 알려진 자로서의 자아’, 구조적 측면인지 발달적 측면인지의 여부에 따라 ‘구조 대(對) 과정으로서의 자아’, 다양성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 또는 다수의 자아’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정의들을 종합하여 자아개념을 인간이 전 생애를 통해 발달하는 환경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자신 스스로 형성한 자기에 대한 신체적·사회적·정신적 능력에 대한 구조나 틀로 정의하고 이의 관점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 3. 청소년의 외모관리행동

외모(appearance)란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볼 때, 첫 번째로 지각하게 되는 부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서 외모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인상을 제공하게 된다. 단 몇 초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 인상 형성은 지각자(perceiver)가 중요시하는 몇 개의 단서(cues)를 통해 그 사람의 성격이나 능력, 나이, 직업 등을 알 수 있게 하며, 이렇게 형성된 인상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후광효과-어떤 대상이나 사람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가 그 대상이나 사람의 구체적인 특성을 평가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현상-(Naver doopedia, 2012. 06. 13)으로 작용하여 이내 고정관념으로 정착되어 버리기도 한다.

Kaiser(1997)는 신체와 신체변형에 의해 생성된 총체적 자기 지각 이미지 혹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관찰할 때 보게 되는 ‘big picture’를 외모라고 정의하였다(Ahn, 2007). 또한 Kaiser(1997)는 사람들이 자신의

외모는 개선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며, 특히 많은 여성들은 자신의 외모개선을 위해 다양한 관리행동-성형수술, 피부관리, 체중 조절 등-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동을 통해 이상적인 신체 이미지와 실제 자신의 신체 이미지와의 괴리감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Rudd와 Lennon(1994)는 자신들의 연구에서 사람들은 어떤 한 문화권내에서 인정되는 이상적인 외모를 자신의 외모와 비교하기 위한 미적 기준으로써 내면화하고, 이 미적 기준에 가까워지기 위해 의복이나 화장 등과 같은 적극적인 노력을 취한다고 하였다(Kim, 2003). 특히나 이러한 노력은 미에 대한 기준을 내면화 한 정도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 Yim(2010)은 ‘청소년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객체화 신체의식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연구에서 미에 대한 기준을 내면화 한 정도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외모관리행동을 더 많이 한다고 밝혔다.

최근 보이는 외모관리행동의 경향은 남성의 외모관리행동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 그 시기도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시작되는 저연령화 추세에 있으며, 의복이나 헤어 등의 간단한 분야에서 점차 화장이나 성형 등의 전문적인 관리 수준으로 확대되는 특징이 나타나므로 본 연구에서는 외모관리행동을 의복스타일추구, 화장 및 피부관리, 헤어관리, 성형 및 체형보정, 체중관리행동으로 나눠 살펴 보려한다.

Park, Han과 Kim(2011)은 의복은 사회·문화적 구성원들의 공유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외모의 한 부분이며, 자신의 신체와 가장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신체의 연장으로서 개인의 신체적 외모에 대한 평가나 느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의복이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동안 자기에 대한 평가를 형성하는 중요한 단서로 사용된다고 말한 Lee(2000)은 자신과 잘 어울리는 의복 및 외모관리행동은 자신의 매력성을 증진시킴으로써 여러 타인과의 바람직한 상호작용을 유도하며, 이는 자아개념을 고양시키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볼 때, 그 안의 피부나 이목구비를 통해 외모가 아름다운지 아닌지를 판단하며, 때문에 피부를 깨끗하게 가꾸고, 화장을 통해 이목구비를 뚜렷하게 만드는 것은 대인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자기에 대한 인식이 뚜렷해지고, 미(美)에 대한 욕

망이 커지는 청소년기의 피부관리나 화장행동은 어쩌면 단순한 호기심이나 소속집단에 대한 모방심리 그 이상을 넘는 자의식의 추구 및 미적 가치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호르몬의 분비가 활성화되는 청소년들은 피부 트러블이나 염증, 여드름 등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피부에 대한 고민 또한 높아질 수밖에 없다. Jeon(2000)은 ‘여·중고생의 화장에 관한 연구’를 실시했는데, 대상자들의 피부고민은 전체 응답의 60.5%가 ‘피부에 피지가 많고 유분이 많이 생긴다’이며, 36.7%가 ‘여드름이 많이 난다’이었다. 피부로 인한 스트레스를 20대 이하에서 가장 많이 받는다는 Kim(2010)의 연구는 피부 트러블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피부만족도가 낮아짐으로 인해 자존감이 위축될 수 있고, 이는 다시 부정적 자아개념 형성의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Park(2008)은 자신의 연구에서 피부만족도가 높을수록 우울증이 낮고, 이를 매개로 우울증이 낮으면 자아 존중감에도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Kim과 Lee(1998)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기초세안이나 팩 등의 피부관리에 더 많은 신경과 관심을 기울인다고 하였다.

헤어는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자신만의 개성과 이미지 변신을 가능하게 하며, 급속한 유행의 흐름에서 가장 손쉽게 시행할 수 있고, 조금의 변화에도 이미지 변신의 효과 및 만족도가 매우 크기 때문에(Choi & Park, 2008), 외모 장식의 중요한 수단이 된다. 현대의 복식문화는 다양한 외모 단서들이 통합되어 하나의 전체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토탈 패션(total fashion)의 경향을 띄고 있고(Ryu & Kim, 2007), 헤어가 의상을 제외한 외모에서 차지하는 이미지는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므로(Jung & Seo, 2009), 헤어와 자기 추구이미지와 관계에서 특별한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헤어는 신체적 결점을 보완하고, 이상적인 신체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신체적 특징, 자아개념, 성격 등에서 개성과 유행성을 나타내는 도구로써 이용되어 심리적 만족감을 얻게 한다(Park, 2004). 이는 청소년들이 교복을 착용할 때, 그들의 개성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복착용 학생들보다 헤어스타일이나 신발에서 많은 변화를 준다는 Huh(1997)의 의견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다. 관찰법을 통해 남자 고등학생의 외모관리행동 양상을 분석한

Park 외(2011)는 남학생들이 외출 전에 다른 곳보다 머리모양에 많은 신경을 쓰며, 같은 또래와 어울려 함께 생활하고, 비슷한 복장이나 헤어스타일을 추구하는 것이 그들만의 세계를 표현하는 방법의 하나로써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Lee, Ahn과 Ha(1992) 또한 그러한 맥락에서 헤어가 사람의 성격이나 자아개념 등의 사회 심리적인 특성을 반영하는 자기표현의 수단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헤어로써 자신의 변화와 연출에 깊이 관여한다고 하였다(Song, 2011 재인용). 즉 헤어는 청소년들의 개성과 동조성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하나의 독특한 하위문화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외모가 커뮤니케이션의 중요한 정보로 사용되는 우리 사회에서 성형의 유희를 떨쳐내기엔 역부족인 듯 보인다. 한 시장조사 전문기업이 한국, 중국, 대만 3개국을 대상으로 ‘일반인의 성형 수술 보편화 정도’를 조사했는데, 한국이 85.2%(중국 65.0%, 대만 63.8%)로 가장 높았고, 성형수술 만족도 또한 65.2%(중국, 46.2%, 대만, 47.9%)로 한국이 가장 높게 나타나(Trend monitor, 2009. 07. 15) 성형수술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보편화되었는지 짐작할 수 있게 하였다. 한편 한 조사기관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여름방학을 이용해 하고 싶은 일’을 물었는데, 무려 20.0% 이상이 ‘성형수술’이라고 응답(Kookmin Ilbo, 2012. 08. 23)하여 성형이 더 이상 젊은 여성들의 전유물이 아닐 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외모관리의 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 불안정한 자아관을 갖는 청소년기에는 세상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한편, 현실 세계에 대한 호기심은 왕성하여 외부의 자극에 쉽게 반응하며 영향을 받기(Lee, 2000) 때문에 자신의 외모를 타인과 비교 및 평가하는 경향이 강해진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신의 신체이미지나 외모에 대한 평가는 정신적인 면에도 영향을 주게 되므로 단순히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Lee & Song, 2009). 때문에 자신에 대한 신체이미지나 외모평가는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이나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다시 성형태도 및 행동과도 높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Hwang, Cho와 Yu(2003)은 ‘외모관심도, 신체만족도, 자아존중감에 따른 미용성형행동 연구’에서 미용성형행동이 얼굴이나 신체만족도가 낮고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과 연관성을

보인다고 밝혔으며, Jeon과 Lee(2005)는 신체만족도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성형태도에 대해 부정적 경향이 나타난다고 하였는데 이는 자아존중감이 외모요인과 상호작용하여 성형수술과 같은 외모관련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Song(2005)의 연구에서는 자신을 마른 체형으로 지각하는(신체만족도가 높은) 사람이 자아개념이 높았고, 신체만족도가 낮은 집단의 성형욕구가 높다고 하였다. Yim(2000)은 ‘미용성형수술 환자와 일반인의 신체상과 자아존중감’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미용성형수술 환자나 일반인 모두 신체상이 강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들의 자각체형과 이상체형을 조사한 Kim(2009)은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자신을 좀 더 뚱뚱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며,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에 비해 좀 더 마른체형을 이상체형으로 지각한다고 하였다. Kim(2008)의 연구에서도 남학생의 93.0%가 표준체중군에, 여학생의 55.9%는 표준체중군, 44.1%는 저체중군에 속하기를 희망한다고 하여 여학생이 좀 더 날씬한 체형을 이상적으로 지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왜곡된 인식은 체형에 대한 불만족감으로 이어지며, 이는 다시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Kim(2009)은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자신의 체형을 불만족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면서, 남·여학생 모두 저체중 집단의 자아존중감의 점수가 높다고 하였다. Wichstrom(1995)역시 외모 및 기능과 관련된 신체상이 강할수록 자아존중감은 유의하게 높고 우울정도는 유의하게 낮다고 보고하였으며, 같은 맥락에서 Kim(2008)은 자신의 연구에서 여성일수록, 완벽한 체형을 이상으로 여길수록, 뚱뚱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스스로를 비만하다고 여길 때, 우울, 불안정함을 보이고 자아개념이 낮다고 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을 토대로 신체상과 자아개념, 자아존중감 간에는 높은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자아개념의 형성과 더불어 신체적 성장이나 성숙이 이뤄지는 매우 중요한 시기인 청소년기에는 왜곡된 신체이미지를 바탕으로 한 무리한 체중조절로 인해 성장 지연이나 골손실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올바른 교육은 필수적이라고 보인다. 또한 체중조절을 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지나치게 왜곡되지 않아야 하며, 체중조절 방법에 대한 합리적인 선택이 이

뤄질 수 있도록 지도 되어져야 할 것이다(Namgung, 2004).

### III. 연구방법

####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3개교 중학교의 남·여 1, 2,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예비조사를 위해 2012년 4월 25일부터 4월 30일에 걸쳐 중학교 1, 2학년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설문 문항의 이해도 및 타당성을 평가한 후 수정·보완하여 설문 문항 작성에 이용하였다. 본 조사는 2012년 5월 2일부터 5월 20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설문지 총 630부를 배부하여 597개의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이 중 부실 기재된 설문지를 제외한 총 588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성별은 남학생 316명(53.7%), 여학생 272명(46.3%)으로 남학생의 비율이 조금 더 높았다. 학년은 1학년이 184명(31.3%), 2학년이 195명(33.2%), 3학년이 209명(35.5%) 이었다.

#### 2. 측정 도구

중학생의 성별, 학년과 자아개념 즉, 일반적 자아, 학문자아, 중요타인자아, 정의자아에 따라 외모관리행동인 의복스타일추구행동, 화장 및 피부관리행동, 헤어관리행동, 성형 및 체형보정행동, 체중관리행동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한 측정 도구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질문지는 성별, 학년, 자아개념에 관한 질문 64개, 외모관리행동에 관한 질문 28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자아개념의 측정도구로는 10세부터 중·고등학생까지의 자아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Song(1982)이 제작하고 한국 심리적성 연구소에서 발행한 위계적 자아개념 측정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검사 I 과 II의 157문항에서

연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문항을 선정해 사용한 Jang(2004)의 64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자아개념을 8개의 항목으로 세분화하지 않고, 일반자아개념(Cronbach's  $\alpha=.64$ ), 학문자아개념(Cronbach's  $\alpha=.71$ ), 중요타인자아개념(Cronbach's  $\alpha=.79$ ), 정서자아개념(Cronbach's  $\alpha=.74$ )의 하위요인으로 분류하여 결과를 살펴본다. 자아개념 측정 도구의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73으로 안정된 지수를 보였다.

외모관리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Kim(2010), Kim, Lee와 Goh(2006), Baek(2011), Wee(2006)의 도구를 참조하여 본 연구에 맞게 문항의 일부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하위요인으로 의복스타일추구행동(Cronbach's  $\alpha=.87$ ), 화장 및 피부관리행동(Cronbach's  $\alpha=.72$ ), 헤어관리행동(Cronbach's  $\alpha=.84$ ), 성형 및 체형보정행동(Cronbach's  $\alpha=.79$ ), 체중관리행동(Cronbach's  $\alpha=.80$ )으로 구성하였다. 전체신뢰도계수(Cronbach  $\alpha$ )는 .80이었다.

### 3. 자료 분석

중학생의 성별, 학년, 자아개념에 따른 외모관리행동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자료 분석을 위해서 SPSS/PC WIN

19.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 처리 하였다.

자아개념과 외모관리행동 측정 도구의 문항들의 내적 일치를 확인하기 위해 신뢰도계수(Cronbach's  $\alpha$ )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조사대상자의 자아개념과 외모관리행동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M), 표준편차(SD) 등의 기술 통계량을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성별, 학년, 자아개념에 따른 외모관리행동의 차이를 알고자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고, 사후검증으로서 Duncan-test를 실시 하였다.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1. 중학생의 자아개념과 외모관리행동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자아개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았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일반자아개념과 학문자아개념은 1.98(.74)로 나타났으며, 중요타인자아개념은 1.97(.80), 정의자아개념은 2.01(.76)로 정의자아개념이 다른 자아개념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학생들의 외모에 대한 인식과 자아개념’을 연구한 Yim(2000)의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자아개념이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middle school students' self-concept

Sub-factors of Self-concept		Questions	M(SD)	
Self-concept	General self-concept	I have confidence in my own side. I am satisfied about current me. I think myself as an honest person.	1.98(.74)	
	Academic self-concept	Class self-concept	I am good at working class as well as my classmates. I see that I have the ability to receive any number of scores. I am satisfied with my school work. I have the ability to solve difficult problems in learning tasks.	1.98(.74)
		Ability self-concept		
		Achievement self-concept		
	Significant Others Self-concept	Social self-concept	My friends like to play with me. I like to get along with others. My family believes me. My parents understand my mind.	1.97(.80)
		Family self-concept		
Emotional-physical self-concept	Emotional self-concept	I think that I'm gay people. I think that my actions is right and honest. I am satisfied with my appearance. I am good at sports as friends.	2.01(.76)	
	Physical self-concept			



2.79~3.67로 본 연구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들의 자아개념이 다른 연구 조사대상자들보다 자아개념이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이것은 본 연구의 조사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소외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며 조사 대상자 또한 중학생이라는 점에서 비롯된 결과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자아개념은 자신에 대한 확신, 만족 등의 총체적인 느낌을 나타내며, 학문자아는 교실 내 활동에서 반 친구들만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등에 대한 능력과 성취에 대한 것을 나타낸다. 그리고 중요타인자아는 중요타인(부모, 교사, 또래 집단)에 의해 평가된 자신에 대한 지각으로 사회적인 인

간관계를 어떻게 느끼는지 그리고 가정에서의 가족원으로서의 적응은 잘 하는지에 대한 대인관계와 중요시되는 타인에 대한 지각을 나타낸다. 또한 정서적 자아는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생김새나 외모에 대한 지각을 나타내는데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은 이러한 모든 하위요인의 자아개념이 보통보다 낮으며 선행연구의 조사대상자 보다 낮게 나타났다. 자아개념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다음으로 조사대상 중학생의 외모관리행동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Table 2>와 같다.

의복스타일추구행동은 자신에게 어울리는 스타일, 평소 유행스타일과 소품 등을 고려해 의복을 선택하는지에 대한 내

Table 2.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of middle School students

	Sub-factors of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Questions	M(SD)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styles in clothes	I tend to purchase my favorite clothes I use to show a greater height shoes(insoles and other high-heeled shoes) I make best efforts to listen well to wear clothes I'm interested in fashionable clothes. I do care trying to fit into the clothes, shoes and bags I should buy the latest fashion accessories(accessory) I try to find a befitting style for me	2.47(.98)
	Makeup and skin care	I have a plan to tattoo(henna, semi-permanent tattoos, etc.) or to be When washing, I use a good form cleanser I tend to shave armpits and arms, and legs I have been to school in makeup cosmetics I have never tried to makeup(BB cream, lip gloss, etc.) Every day I used lotion and skin toner. I often wash to clean my skin.	2.38(.90)
	Hair care	I use treatments for hair products I invest a lot of time and effort for Hair styling (dyeing, perm, etc.) When going out, I use the dryer or hair set tool I often use hair products(wax, essence, gel, etc.) When I go out, I spend special attention to hair care.	2.30(1.02)
	cosmetic surgery and body shaping	I'm willing to have functional underwear(bras, corsets, etc.), or to wear wear to complement your body shape I attend to the health club for a slim figure. I have plastic surgery done or is planning to. I have some dental work done or is planning to.	1.97(.84)
	Weight control Management	I'm worried about little weight may change, I have taken drugs(diuretic, laxative, lose weight medicine, etc.) in order to reduce weight I have never eaten anything for diet. If the other person to say that I'm fat, I'm worried about it even if never gaining weight I do exercise through jogging and sit-ups etc..	2.28(.91)

용으로 2.47(.98)이었으며, 화장 및 피부관리행동은 피부청결 관리 및 화장의 여부 등에 관한 내용으로 2.38(.90)이었다. 헤어관리행동은 머리에 매직이나 드라이기를 사용하여 관리 하는지 등에 관한 내용으로 2.30(1.03)이었으며, 성형 및 체형보정행동은 치열교정, 성형, 문신 등 체형의 보정과 성형에 관한 관심 및 행동을 나타내며 1.97(.84)이었다. 체중관리행동은 약물이나 운동 등으로 체중을 관리하고 얼마나 자신의 체중에 관심이 있는지에 관한 내용으로 2.28(.91)이었다. 중학생 청소년들은 자신이 쉽게 바꿀 수 있는 영역인 의복스타일 추구행동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반면 위험 부담감이나 비용 부담감이 높은 성형 및 체형보정행동은 잘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Kim(2012)은 ‘여고생의 외모관리행동과 올바른 식생활과의 상관관계 연구’에서 메이크업 4.29, 의복 및 장신구 3.32로 여고생들은 메이크업을 가장 많이 하고, 헤어관리, 피부관리, 체중관리 순으로 외모관리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메이크업과 의복 스타일을 가장 많이 하는 결과는 본 연구에서의 의복스타일과 화장 및 피부관리행동을 많이 하는 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Lee(2011)의 연구에서 중학생의 외모관리행동은 피부 3.36, 헤어 2.81, 화장 2.44로 조사되어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보다 외모관리행동을 조금 더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2. 중학생의 성별과 학년에 따른 자아개념과 외모관리행동의 차이

다음으로 본 조사대상 중학생들의 성별, 학년에 따른 자아개념의 차이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Table 3>과 같았다.

먼저 성별에 따른 자아개념의 차이를 살펴보면, 일반자아개념을 제외한 학문자아개념(p<.01), 중요타인자아개념(p<.001), 정서자아개념(p<.01)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학문자아, 중요타인자아, 정서자아의 개념이 더 높았다. 이는 사회적 자아개념이 여학생에게서 더 높다고 한 Kim(1999)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정서자아개념이 더 높다고 한 Song(2005)의 연구와는 다른 경향을 보였다. 다음으로 본 조사대상자는 학년에 따라 자아개념의 차이가 유효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자아개념이 다른 학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Bae와 Shin(2012)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자아개념이 더 높았는데 본 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하였으며,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남학생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아개념이 더 낮아졌고 여학생은 중학교 2학년 때 가장 낮았는데 본 연구와는 약간 차이가 있었다.

다음으로 성별과 학년에 따른 외모관리행동의 차이를 의복스타일추구, 화장 및 피부관리, 헤어관리, 성형 및 체형보정, 체중관리행동으로 나눠 살펴 본 결과는 <Table 4>와 같았다.

성별에 따른 외모관리행동의 차이를 살펴보면 의복스타일 추구행동(p<.001), 화장 및 피부관리행동(p<.001), 헤어관리행

Table 3. Differences of self-concepts according to gender and grade in middle school students

N=588

Factor		General self-concept	Academic self-concept	Important to others self-concept	Emotional-physical self-concept
		M(SD)	M(SD)	M(SD)	M(SD)
Gender	Male	3.34(.55)	3.15(.68)	3.41(.56)	3.19(.65)
	Female	3.41(.47)	3.30(.59)	3.62(.50)	3.33(.57)
	t	-1.57	-2.68**	-4.58***	-2.82**
Grade	1 Grade	3.41(.53)	3.17(.61)	3.51(.52)	3.19(.64)
	2 Grade	3.36(.47)	3.24(.63)	3.54(.55)	3.31(.60)
	3 Grade	3.34(.55)	3.23(.68)	3.48(.57)	3.25(.62)
	F	.75	.59	.55	1.92

\*\*p<.01 \*\*\*p<.001

Table 4. Differences of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according to gender and grade in middle school students

N=588

Factor		Styles in clothes	Makeup and skin care	Hair care	Cosmetic surgery and body shaping	Weight control Management
		M(SD)	M(SD)	M(SD)	M(SD)	M(SD)
Gender	Male	2.05(.90)	1.95(.76)	1.63(.76)	1.81(.84)	1.88(.80)
	Female	2.95(.84)	2.87(.78)	2.38(.75)	2.85(.95)	2.74(.80)
	t	-12.33***	-14.34***	-11.85***	-13.95***	-12.84***
Grade	1 Grade	2.42(1.04)	2.30(.83)	2.17(1.03)	1.82(.76) <sup>B</sup>	2.17(.87)
	2 Grade	2.53(1.04)	2.47(.97)	2.41(1.10)	2.07(.92) <sup>A</sup>	2.32(.92)
	3 Grade	2.47(.87)	2.37(.87)	2.30(.94)	2.02(.82) <sup>A</sup>	2.35(.92)
	F	.58	1.71	2.53	4.53*	2.18

\*\*\*p<.001

등(p<.001), 성형 및 체형보정행동(p<.001), 체중관리행동(p<.001)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전반적으로 외모관리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모관리행동 수준이 전반적으로 여학생에게 더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들과도 같은 경향을 보인다(Han, 2009; Lim, 2010).

학년 에 따른 외모관리행동은 성형 및 체형보정행동(p<.05)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중학생 2, 3학년이 1학년보다 성형 및 체형보정행동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을 나타내며, 이는 학년 간 외모관리행동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본 Beak(2011)과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외모관리행동을 비교한 Lee(2011)의 연구에서는 초등학생보다 중학생이,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외모관리행동을 비교한 Seol과 Choi(2010)의 연구에서는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의 외모관리행동이 높아 학교급별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외모관리행동도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다고 짐작해 볼 수 있었다. 최근 외모관리의 저연령화 추세로 중학생의 외모관리행동이 높아졌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자아개념과 외모관리행동의 점수가 낮은 것은 본 연구의 조사대상 지역적 특성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측된다.

### 3. 중학생의 자아개념에 따른 외모관리행동 차이

중학생의 자아개념에 따른 외모관리행동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자아개념의 하위 요인 즉, 일반자아, 학문자아, 중요타인자아, 정서자아개념에 따른 외모관리행동의 하위요인인 의복스타일추구, 화장 및 피부관리, 헤어관리, 성형 및 체형보정, 체중관리행동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 1) 자아개념에 따른 의복스타일추구행동 차이

중학생들의 의복스타일추구행동은 학문자아개념(p<.05), 중요타인자아개념(p<.01), 정의자아개념(p<.001)에 정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5). 즉 학업이나 공부에 대해 갖는 개념과 자신의 신체나 정서에 관한 개념이 ‘상’과 ‘중’일 때는 ‘하’보다 유의한 차이로 의복에 높은 관심을 가지며 추구하는 스타일의 의복을 구매하는 등의 행동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요시되는 타인에 대한 지각정도의 개념이 ‘상’일 때 ‘하’일 때보다 의복스타일추구행동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hn(2011)은 우월적 자아요인이 증가할수록 패션관리행동도 증가한다고 하여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으며, Park과 Chung(2010), Moon과 Yoo(2002)의 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과 의복행동은 높은 연관성이 있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다른 선행된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심리적으로 안정되기 때문에 옷을 아름답게 입고 경제적으로 관리하는 등

Table 5. Differences in styles in clothes according to the self-concept of middle school students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Styles in clothes		F-value
		M(SD)	D	
General self-concept	high	2.56(1.10)		1.20
	middle	2.47( .97)		
	low	2.39( .88)		
Academic self-concept	high	2.53(1.13)	A	3.10*
	middle	2.54( .90)	A	
	low	2.31( .94)	B	
Important to others Self-concept	high	2.64(1.10)	A	5.37**
	middle	2.47( .98)	AB	
	low	2.31( .82)	B	
Emotional-physical self-concept	high	2.65(1.18)	A	12.49***
	middle	2.56( .82)	A	
	low	2.16( .90)	B	

\*p<.05 \*\*p<.01 \*\*\*p<.001, D=Duncan grouping, A>B  
 low ≤ M-½SD, M-½SD ≤ middle ≤ M+½SD, M+½SD ≤ high

의복행동에 높은 관심을 갖는다(Kim & Yun, 1986)고 하여 자아존중감과 의복행동은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자아존중감은 자아개념의 하위요소이므로 자아개념과 의복행동은 높은 관련성을 보일 것이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

2) 중학생의 자아개념에 따른 화장 및 피부관리행동 차이

중학생들의 피부관리행동은 정의자아개념(p<.001)의 정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6). 즉 자신의 신체나 정서에 관한 개념이 ‘상’과 ‘중’일 때는 ‘하’일 때 보다 유의

Table 6. Differences in makeup and skin care according to the self-concept of middle school students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Makeup and skin care		F-value
		M(SD)	D	
General self-concept	high	2.36(.88)		.07
	middle	2.39(.91)		
	low	2.38(.89)		
Academic self-concept	high	2.41(.97)		2.03
	middle	2.44(.86)		
	low	2.26(.87)		
Important to others self-concept	high	2.46(.92)		1.46
	middle	2.38(.93)		
	low	2.30(.83)		
Emotional-physical self-concept	high	2.41(.98)	A	6.71***
	middle	2.46(.83)	A	
	low	2.17(.86)	B	

\*\*\*p<.001, D=Duncan grouping, A>B  
 low ≤ M-½SD, M-½SD ≤ middle ≤ M+½SD, M+½SD ≤ high

Table 7. Differences in hair care according to the self-concept of middle school students

Self-concept \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Hair care		F-value
		M(SD)	D	
General self-concept	high	2.26(1.08)		1.92
	middle	2.32(1.03)		
	low	2.30( .98)		
Academic self-concept	high	2.24(1.12)		2.45
	middle	2.40( .98)		
	low	2.19( .98)		
Important to others self-concept	high	2.35(1.09)		1.07
	middle	2.33(1.07)		
	low	2.21( .90)		
Emotional-physical self-concept	high	2.37(1.16)	A	8.68***
	middle	2.43( .94)	A	
	low	2.02( .94)	B	

\*\*\*p<.001, D=Duncan grouping, A>B  
 low ≤ M-½SD, M-½SD ≤ middle ≤ M+½SD, M+½SD ≤ high

한 차이로 화장 및 피부관리행동을 잘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Lee(2011)의 연구의 신체자아개념(정의자아개념의 하위 범주에 속함)이 높을수록 피부관리를 잘 한다는 결과와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으며, 자아존중감이 높은 학생의 화장행동 수준이 높다는 Han과 Park(2009)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Kim과 Lee(1998)도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기초세안이나 팩 등의 피부관리에 더 많은 신경과 관심을 기울인다고 하였다. Ahn(2011)는 남자대학생의 경우 우월적 자아요인이 높거나 혹은 열등적 자아요인이 높을수록 피부관리행동이 높다고 했는데, 이는 외모지상주의가 팽배해 있는 우리 사회에서 우월적 자아요인이 높은 집단은 외모관리를 통해 자신감을 표출하려는 것이고, 열등적 자아요인이 높은 집단은 자신의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 더 나은 외모를 가지려는 행동의 일환으로 외모관리행동을 한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정의자아개념이 ‘상’과 ‘중’일 때, ‘하’일 때 보다 피부를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화장을 하는 등의 행동을 더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중학생의 자아개념에 따른 헤어관리행동 차이

중학생의 헤어관리행동은 정의자아개념(p<.001)이 ‘상’과

‘중’일 때는 ‘하’일 때 보다 유의한 차이로 헤어관리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7). 즉 자신의 신체나 정서에 관한 개념이 높거나 중간인 중학생들은 헤어를 아름답게 가꾸고 손질하는 등의 행동을 더 자주하는 것으로 보인다. Lee(2011)의 연구에서 자아개념과 헤어관리행동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본 연구의 결과와는 다른 경향을 보였으나, Han과 Park(2009)의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학생의 헤어행동이 유의하게 높았다고 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다. Ahn(2011) 또한 남자대학생의 우월적 자아요인이 높을수록 헤어관리행동이 높아진다고 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4) 중학생의 자아개념에 따른 성형 및 체형보정행동 차이

중학생의 성형 및 체형보정행동은 일반자아개념(p<.01)과 정의자아개념(p<.01)의 정동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Table 8). 즉 총체적 자신이 지각하는 모습에 대한 개념이 ‘중’과 ‘하’일 때, ‘상’일 때 보다 유의한 차이로 치열교정, 성형, 문신 등에 관한 관심 및 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아존중감이 낮은 학생이 미용성형행동을 많이 한다는 연구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낸다(Han & Park,

Table 8. Differences in plastic and figure modification according to the self-concept of middle school students

Self-concept \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Cosmetic surgery and body shaping		F-value
		M(SD)	D	
General self-concept	high	1.84(.84)	B	4.86**
	middle	1.95(.84)	A	
	low	2.13(.84)	A	
Academic self-concept	high	1.89(.89)		2.58
	middle	2.06(.84)		
	low	1.92(.80)		
Important to others self-concept	high	1.89(.85)		1.74
	middle	1.97(.85)		
	low	2.06(.83)		
Emotional-physical self-concept	high	1.88(.91)	B	6.46**
	middle	2.12(.79)	A	
	low	1.86(.82)	B	

\*\*p<.01, D=Duncan grouping, A>B  
 low ≤ M-½SD, M-½SD ≤ middle ≤ M+½SD, M+½SD ≤ high

2009). Ahn(2011)의 연구에서도 열등적 자아개념의 증가는 미용성형관리행동의 증가를 가져온다고 보아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다른 선행된 Jeon과 Lee(2002), Hwang 외(2003) 등의 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의 미용성형행동의 수준이 높다고 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흐름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자신의 신체나 정서에 대한 개념이 ‘중’일 때 ‘상’이나 ‘하’일 때 보다 성형 및 체형보정행동을 더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감정과 신체에 대한 만족을 나타내는 정의자아개념이 아주 낮은 중학생의 경우 성형행동을 하고 싶어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Jeon

Table 9. Differences in weight control management according to the self-concept of middle school students

Self-concept \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Weight control Management		F-value
		M(SD)	D	
General self-concept	high	2.22(.92)		.89
	middle	2.28(.89)		
	low	2.35(.93)		
Academic self-concept	high	2.31(.99)		2.05
	middle	2.34(.84)		
	low	2.16(.92)		
Important to others self-concept	high	2.34(.95)		.64
	middle	2.28(.92)		
	low	2.23(.84)		
Emotional-physical self-concept	high	2.28(.96)	A	6.02**
	middle	2.41(.84)	A	
	low	2.10(.90)	B	

\*\*p<.01, D=Duncan grouping, A>B  
 low ≤ M-½SD, M-½SD ≤ middle ≤ M+½SD, M+½SD ≤ high

과 Lee(2002), Hwang 외(2003)의 조사대상자는 여대생과 성인이었으며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신체와 정서발달의 변화가 큰 중학생이었는데 결과의 차이는 조사대상자 연령의 차이에서 오는 것으로 추정된다.

5) 중학생의 자아개념에 따른 체중관리행동 차이

중학생의 체중관리행동은 정의자아개념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는데(Table 9), 정의자아개념( $p < .01$ )이 ‘상’, ‘중’일 때 ‘하’일 때 보다 체중관리행동을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자신의 신체나 정서에 관한 개념이 높거나 중간일 때 운동이나 식이요법 등으로 체중을 관리하는 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체중관리행동 수준이 유의하게 높다고 한 Lee(2012)의 연구나 학교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체중관리행동이 높아진다고 한 Kim, Lee와 Goh(2006)의 연구와도 유사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중학생의 자아개념, 즉 일반자아, 학문자아, 중요타인자아, 정의자아개념의 정도에 따라 외모관리행동인 의복스타일추구, 화장 및 피부관리, 헤어관리, 성형 및 체형보정, 체중관리행동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가정이나 학교 등의 생활 지도 현장에서 중학생의 외모관리행동은 세대 간의 의견차가 보이는 영역이므로, 이 연구를 통해 중학생의 외모관리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중학생의 자아개념과 외모관리행동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고, 중학생의 자아개념에 따라 외모관리행동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종합·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인 중학생들의 자아개념, 즉 일반자아개념,

학문자아개념, 중요타인자아개념, 정의자아개념 중 정의자아개념이 다른 자아개념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 자아개념이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의복스타일추구행동, 화장 및 피부관리행동, 헤어관리행동, 성형 및 체형보정행동, 체중관리행동의 외모관리행동 중 중학생 청소년들은 자신이 쉽게 바꿀 수 있는 영역인 의복스타일추구행동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반면 위험 부담감이나 비용 부담감이 높은 성형 및 체형보정행동은 잘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대상 중학생들은 평균적으로 자아개념 및 외모관리행동이 낮게 나타났다. 이 결과를 보면 본 조사대상 중학생을 위한 자아개념 증진 프로그램이나 상담 등의 기법을 통해 자아개념을 높일 수 있는 지도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조사대상자인 중학생은 성별에 따라 학문자아개념, 중요타인자아개념, 정의적 자아개념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더 자아개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의복스타일추구행동, 화장 및 피부관리행동, 헤어관리행동, 성형 및 체형보정행동, 체중관리행동의 외모관리 행동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외모관리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년에 따라서는 자아개념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성형 및 체형보정의 외모관리행동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보여 2학년이상이 되면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아개념 중 정의자아개념이 높은 학생이 의복스타일추구행동, 화장 및 피부관리행동, 헤어관리행동, 체중관리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신의 학업이나 학업에 대한 지각이 중간이거나 높을 때는 낮은 학생보다 의복으로 원하는 이미지 추구나 의복 관리 행동이 높았고, 총체적 자아개념이 높은 학생들은 인위적인 외모관리행동에는 다소 소극적인 경향을 보였다. 또한 자신의 신체나 성격에 대해 만족해하는 학생은 성형이나 체형보정 등의 행동을 제외한 외모관리행동들에는 적극적임을 알 수 있었다.

자아개념은 자신이라고 생각되는 총체적인 생각이므로 긍정적 자아개념을 가지고 있는 중학생들은 피부를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나 헤어를 아름답게 손질하고 가꾸는 것으로 자신을 나타내려하며, 신체 다음으로 가까운 ‘제 2의 나’로 지각되는 옷, 신발, 가방을 잘 갖추어 입고 깨끗하게 관리

함으로써 스스로의 자존감이나 개성을 표현하려고 한다. 시간과 장소 상황에 알맞은 의복행동에 관한 지도가 가정교과 시간에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즉, 자신이 총체적으로 지각하는 개념이 높고, 공부와 학업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보이며, 중요시되는 타인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지각하고, 자신의 신체나 정서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중학생들은 의복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자신이 추구하는 이미지를 나타내려는 행동이 높은 반면, 성형이나 체형 등 자신의 신체를 인위적으로 변경시키려는 행동은 낮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업이나 학교생활에서 만족감이 높은 학생들은 헤어를 손질하거나 가꾸는 행동은 잘 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

이처럼 중학생들의 높은 성형 및 체형보정행동은 낮은 자아개념과 관련되므로 스스로 자신의 외모를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자아개념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이 꾸준히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학계에서 자아개념을 증진할 수 있는 외모관리행동 프로그램-예를 들어 지역사회 전문가를 초빙해 직접 자신에게 어울리는 옷차림이나 헤어, 피부관리 교육을 통한 자아증감과 자신감 향상 프로그램, 혹은 미디어를 활용한 건전한 신체 이미지상 교육 프로그램-이나 상담기법을 통한 자아개념 증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교과 지도와 연계한 교육, 특히 가정교과 ‘청소년의 이해’ 단원에서 자아정체감 형성에 관한 부분을 가르칠 때 이를 활용하고, ‘청소년의 생활’ 단원 지도 시 시간과 장소, 상황에 알맞은 외모관리행동을 통한 올바른 자아이미지 추구나 긍정적 자아개념의 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이 광주지역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기 때문에 전국의 청소년에 대해 일반화시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외모관리행동을 연구함에 있어서 자아개념뿐만 아니라 의미 있는 변인을 확장하여 연구한다면 청소년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라 생각된다.

## 참고문헌

- Ahn, C. R. (2011). *The effects of body image and self-esteem on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of male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kyeong University, Seoul, Korea.
- Ahn, N. Y. (2007). *The effects of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and objectifies body consciousness on appearance-management behavio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Korea.
- Bae, J. Y., Shin, S. Y. (2012). Gender-specific factors of self-concept in Korean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Stress*, 20(2), 87-95.
- Baek, S. J. (2011). *A study on variables of adolescent's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Korea.
- Choi, J. W. (2011). *The effects of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and body esteem on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Choi, S. J., Park, H. W. (2008). The attitude of hair cut, permanent wave, coloring by age in women's customer. *Fashion Business*, 12(4), 28-45.
- Choi, Y. M., Park, H. G., Son, Y. S., Jung, M. S., Kim, H. W., Choi, H. R., Baek, H. J., Kang, S. H., Lee, E. G., Lee G. M., Lee, E. S., Jung, H. H. (1998). *Modern youth psychology*. Seoul: Hakmunsa.
- Chung, M. S. Lee, K. S. (2007). The influence of aesthetic surgery attitude, self-esteem and body image on clothing behavior.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5(7), 131-140.
- Elkind, D. (1967). Egocentrism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38, 1025-1034.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 Norton.
- Han, D. J., Park, G. S. (2009). Appearance management participant observation teenagers look around II: skin care, body care. *Proceedings of the 2009 Summer Korean association of human ecology Association Conference*.(pp.145-146)
- Huh, J. A. (1997). *A study on the correlation between deviant tendencies and apparel behavio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Hwang, S. H. (2005). *Effects of physical activity on probation subject to change youth's psychological*.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 Hwang, Y. J., Cho, G. Y., Yu, T. S. (2003). The Study on cosmetic surgery behavior according to appearance concern, body cathexis, and self-esteem.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ashion Business*, 7(4), 17-25.
- Jang S. A. (2004). *A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expectation perceptions and self-concept among elementary, middle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Mokpo National University, Mokpo, Korea.
- Jang, H. S. (2003). *Psychology of adolescence*, Seoul:Jinhaksa.
- Jeon, B. G. (2000). *A study on the makeup of girls in middle and high school: In case of use of cosmetic girls' middle school in Seoul*.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Jeon, G. R., Lee, M. H. (2002). A study on the need, self-esteem and aesthetic surgery attitude of femal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52(6), 71-83.
- Jeon, H. J. (2010). *The effects of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and body esteem on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Korea.
- Joen, G. R., Lee, E. H. (2005). The effect of need on aesthetic surgery attitude and clothing attitude of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14(1), 119-132.
- Jung, G. S., Seo, G. H. (2009). The relationship between attitude of heir care and wellbeing factors in female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Beauty Society*, 15(2), 534-543.
- Jung, O. B. (2005). *Youth psychology*. Seoul:Hakmunsa.
- Kaiser, S. B. (1997).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Symbolic appearances*(2nd ed). New York: Macmillan Pub. co.
- Kang, H. W. (1995). *Costume social psychology*. Seoul: Gyomunsa.
- Kim, A. N. A., Lee, S. G., Koh, A. R. (2006). Effects of media involvement, body satisfaction and self-esteem on the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of preteen boys and girl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30(11), 1538-1549.
- Kim, A. R. (2010). *A study on the preferred celebrity hairstyles among youth and the influencing factors from the media*.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rgyung University, Seoul, Korea.
- Kim, G. H. (2010). *A study on the causal relationships among dancing experience, role execution, obsession and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of dance majoring high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Seoul Korea.
- Kim, H. J. (1999). *Self-concept, school adjustments and social ability according to birth order and gender of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Kim, H. J. (2008). *A comparison between the aware of the body due to obesity, weight control experience and self-esteem in Daegu high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G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Korea.
- Kim, H. S. (2012). *A study on the correlation between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and eating habits of high school girl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Seoul, Korea.
- Kim, J. S. (2009). *A comparison of boy and girl on body awareness, self-esteem, eating habit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ju, Korea.
- Kim, K. O., Lee, J. R. (1998). Skin health according to women's self-esteem and skin care habits. *Journal of Korean Beauty Society*, 4(1), 85-109.
- Kim, M. S. (2010). *A study on the effect of women skin care on self-esteem*.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sung University, Seoul, Korea.
- Kim, S. G., Yun H. J. (1986). The influence of self-esteem on the clothing behavior among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10(1), 1-8.
- Kim, S. H. (2003). A study on the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 appearance and appearance-management behavior: Focused on females in their twentie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1(5), 99-108.
- Kookmin Ilbo (2012. 08. 23). Increase youth molded case ...: Growing risk of tissue damage. Available at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hel&arcid=0006371707&code=46111301>.
- Korea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10). *Korea youth index research V-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of adolescent health status: Korea · USA · Japan · China 4country comparison*. 15-17. Available at <http://www.nypi.re.kr/paper/list.np>.
- Kuhn, D., Ho, V., Adams, C. (1979). Formal reasoning among pre-and late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50, 1129-1135.
- Lee, G. S. (2007). *Seeking image and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interest due to the appearance of wom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kyeong University, Seoul, Korea.
- Lee, H. J. (2011). *The effects of primary and secondary female sex mature and self-concept on appearance-concern and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guk University, Seoul, Korea.
- Lee, J. J, Kim, Y. J. (1995). The enhancement of self-concept through clothing. *Journal of University*, 13, 91-113.
- Lee, J. Y. (2012). *A study on the explore to women's self-esteem and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Lee, M. S. (2009). The relationships among body image, social self concept and clothing behavior of adolesc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33(3), 433-443.
- Lee, M. S. (2000). *The effects of TV media on body images clothing behaviors and star-entertainment imitation behavio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Korea.
- Lee, M. S., Song, G. J. (2009). The effects of attitudinal body image and plastic surgery attitude on clothing behaviors.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18(2), 441-449.
- Lim, B, H. (2010). *The Effects of Adolescences'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 Appearance and Objectified Body-consciousness on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Daegu, Korea.
- Moon, H. G., Yoo, T. S. (2002). The effects of social self-efficacy on clothing attitude and degree of make-up depending on depression and stres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51(3), 77-94.
- Park, E. J., Chung, M. S. (2010). The effects of narcissistic personality and self-esteem on the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of female college students.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18(4), 717-730.
- Park, G. S., Han, D. J., Kim, S. G. (2011). Observational analysis of appearance management by male adolescents part one activities: focused on the clothing, hair, and makeup. *The Treatise on The Plastic Media*, 14(4), 19-24.
- Park, J. B. (2004). *Study on clothing behavior and hairstyle*

- behavior to physical characteristics and body cathexis of college wom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Josun University, Gwangju, Korea.
- Rudd, N., Lennon, S. (1994). Aesthetics of the body image and social identity theory. In M. DeLong and A. M. Fiore(Eds), *Aesthetics of Textiles and Clothing: Advancing Multi-Disciplinary Perspectives*, 163-175.
- Ryu, G. W., Kim, J. S. (2007). The effect of male make-up and hair style on the impression perception. *Journal of Korean Beauty Society*, 13(3), 1330-1344.
- Seol, H. J., Choi, I. R., (2010). A study on beauty action of the growing generation.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18(3), 514-525.
- Shin, H. O. (2008). *The effects on appearance concern, appearance complex and body satisfaction of middle school boy and girl students on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and appearance management expens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Song, G. J., Kim J. S. (2005). The effects of body-image measured by multi measurements on body modification, self concept, and clothing behavior.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29(3,4), 391-402.
- Song, I. S. (1982). *Human psychology and self-concept.* Seoul: Yangsuhwon
- Song, Y. H. (2011). *A study on the Youth buying behavior of hair produc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 Statistics korea (2006). Problems that troubled youth. Available at <http://kostat.go.kr/wnsearch/search.jsp>.
- Tanner, J. M. (1978). *Fetus into man: Physical growth from conception to maturit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The korea economic daily (2010. 9. 15). 200 billion for 'the teens cosmetics' market is hot. Available at <http://www.hankyung.com/>.
- Trend monitor (2009. 07. 15). Plastic surgery Korea highest satisfaction. Available at [http://www.trendmonitor.co.kr/html/01\\_trend/02\\_asia\\_view.asp?idx=579](http://www.trendmonitor.co.kr/html/01_trend/02_asia_view.asp?idx=579)
- Wee, E. H. (2006). A comparison of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of middle school boys with girls in relation to the perception of body size: among girls and boys' middle school in Gwangju.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18(3), 119-131.
- Wichstrom, L. (1995). Social, Psychological and Physical Correlates of Eating Problems. A Study of the General Adolescent Population in Norway, *Psychological Medicine*, 25(3), 567-579.
- Women's News (2012. 1. 13). Youth cosmetic boom in vacation: If you do not own damages not?. Available at <https://www.womennews.co.kr/news/52155>.
- Yim, B. H. (2010). *The effect of social · cultural attitudes of appearance and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on youth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Daegu, Korea.
- Yim, S. J. (2000). *Awareness of students' appearance and self-concept.*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국문요약>

본 연구는 중학생의 자아개념, 즉 일반자아, 학문자아, 중요타인자아, 정의자아개념에 따라 외모관리행동인 의복스타일추구, 화장 및 피부관리, 헤어관리, 성형 및 체형보정, 체중관리행동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가정이나 학교 등의 생활 지도 현장에서 중학생의 외모관리행동은 세대 간의 의견차가 보이는 영역이므로, 이 연구를 통해 중학생의 외모관리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가정교과교육을 통한 자아개념의 증진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았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중학생들은 평균적으로 자아개념이 낮아 자신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외모관리 행동 또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노력과 함께 외모관리행동을 통한 자아개념의 긍정적 증진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긍정적 자아개념을 가지고 있는 중학생들은 피부를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나 헤어를 아름답게 손질하고 가꾸는 것 등으로 자신을 나타내려하며, 옷, 신발, 가방을 잘 갖추어 입고 깨끗하게 관리함으로써 스스로의 자존감이나 개성을 표현하려고 하였다.

또한 자신을 인식할 때 공부와 학업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보이며, 중요시되는 타인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지각하고, 자신의 신체나 정서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중학생들은 의복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자신이 추구하는 이미지를 나타내려는 행동이 높은 반면, 성형이나 체형 등 자신의 신체를 인위적으로 변경시키려는 행동은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절한 외모관리행동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논문접수일자: 2013년 06월 03일, 논문심사일자: 2013년 07월 04일, 게재확정일자: 2013년 08월 30일